

모자보건의 새로운 패러다임



張錫準

보건복지부 차관

모자보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큰 주류를 이루었던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이 점차 쇠퇴하고, 1994년 세계인구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생식보건이라는 개념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다.

종래의 모자보건은 여성의 임신, 분만에, 가족계획은 인구억제와 출산율 저하에 중점을 두어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는 청소년 성문제, 불임, 임신중절, 성병, 에이즈 등을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이란 WHO의 정의에 의하면, “생식구조, 기능 및 과정과 관련된 모든 질병의 부재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완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199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이 1%수준으로 둔화되면서 기존의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에 생식보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1996년에 신인구정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가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개념을 도입하고, “모든 국민이 일생동

**생식보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은 앞으로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2000년대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인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새로운 개념의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생식보건사업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관리개념을 도입하여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후적 치료는 물론 예방에 중점을 두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간에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생식보건서비스를 공동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생식보건 증진에 중점을 둘 것이다.

넷째, 평생건강관리 체계하에 임신 - 분만 - 영유아관리 - 청소년관리 - 가족계획 - 임신부건강관리 - 장년기건강관리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 23개 보건소를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하여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중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전국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식보건사업은 사회구조적, 문화적 여러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보건의료부문이나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분야, 교육분야, 노동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공중보건체계와의 상호개선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생식보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은 앞으로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2000년대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보건복지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민간 부분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 